

카슈미르 분쟁

주제: 카슈미르 영역 갈등, 힌두교, 이슬람교도 종교 갈등

위치: 아시아

갈등 주제: 인도[힌두교], 파키스탄[이슬람교도], 카슈미르



갈등 모습: 1947년 8월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할 당시 파키스탄도 인도에서 분리되었으나, 카슈미르 지역의 귀속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였다. 결국 당시 카슈미르 통치자가 인도로부터 각종 원조를 제공받는 대가로 인도 편입 조약에 서명하자 파키스탄이 이에 반발하면서 1947년 10월 양국간 1차 전쟁이 발발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1차 전쟁은 1948년 8월 유엔의 중재로 정전 합의가 이루어졌고, 카라치[Karachi] 협정에 의해 인도령과 파키스탄령으로 양분되었다. 군사분계선은 카슈미르의 3분의 1을 파키스탄에 편입하는 것이었지만 인도의 지역 패권은 상당 부분 인정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카슈미르의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이슬람교도들은 소수인 인도 힌두교도의 통치권 행사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슬람 근본 주의자들은 카슈미르의 독립 또는 파키스탄으로 병합을 요구하며 끊임없는 게릴라전으로 도발했다. 그래서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가 세력 다툼을 하게 된 것인데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 보유국이어서 핵 전쟁을 우려해 국제 사회의 중재 노력은 지속되었다. 양국은 1948년, 1965년, 1971년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전쟁을 벌였다. 그러다 결국 국제 연합[UN]의 중재로 1972년 분할 통치로 결론이 났다. 이 협정상의 카슈미르 정전경계선이 오늘날의 통제선이 되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양국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아 현재까지도 서남아시아 최대의 분쟁지역으로 남아 있다. 현재 잠무 카슈미르는 인도령, 아자드 카슈미르는 파키스탄령에 속해 있다.

갈등 원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지역을 서로 자기 나라라고 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 다른 종교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